김·미역 고수온 피해 우려

전남 서남해안 해수온도 평년보다 2.4도 높아

갯병 확산 김생산 15% 감소 … 신품종 서둘러야

최근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전남이 주산지인 김·미역 등 해조류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 지역 바다 수온은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해남 해양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남해안 인근 해수 온도는 월평균 12.3도로 평년의 9.9도에 비해 무려 2.4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 지역 바다 온도도 지난해 1도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해조류 작황이 부진한데다 붉은 반점이 생기는 갯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는 갯병이 확산돼 목표 대비 85% 생산에 그쳤다.

이에따라 올해 물김 가격은 오르고 마른 김 가격은 상승해 김 가공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웰빙 식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매생이 역시 따뜻한 겨울날씨가 계속되면서 주 산지인 강진과 장흥, 고흥 일대 지난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

이같은 바다 수온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갯병에 강한 해조류 신 품종 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확대 보급 ▲고수온·갯병 등에 강한 새로운 국내품종 개발 ▲ 붉은 갯병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 해조류연구센터 황미숙 박사는 "바다 온도가 1도 상승하는 것은 육지에서는 10도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김 양식을 위해서는 고수온을 이겨낼 신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대-舊여수대 통합효과 '톡톡'

여수캠퍼스 신입생 등록률 10%P 급증

대외 이미지 크게 개선… 취업 등 도움 커

전남대 여수캠퍼스(옛 여수대학교)가 전남대와의 통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해 3월 전남대와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2006, 2007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88.5%, 93.7%로 통합전인 2005학년도의 83.4%에 비해 각각 5.1%포인트와 10.3%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2005학년도에는 전체 신입생의 65.4%를 차지했던 여수·순천·광양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각각 49.9%와 38.6%로 떨어진 반면 광주 등 타지역 고교 졸업생 비율은 높아졌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의 경우 전체 신입생 중 57.4%였던 인문계 고교 졸업생 비율이 2006학년도에는 72.2%, 2007학년도에는 87.9%로 매년 10% 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졸업생 취업률도 2005년 53.4%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5.0%, 올해는 62.9%로 각각 높아졌다.

이같은 취업률 상승은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돼 졸업생들이 기업체 서류전형 때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우수 강사 유치와 전문 분야 육성 및 숙원사업인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상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광주에 있는 전남대 교수들이 여수캠퍼스에서 교양 강의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셋째 아이 무료보험

광산구 내달부터 가입

광산구가 다음달 1일부터 셋째 신생아를 무료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광산구는 지난 4월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20일 금호생명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올 7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다.

광산구는 3만원 이내 금액을 금호생명에 5년간 납입하며 보장기간은 10년이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40-8544)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코스모스 심기 한창 보성읍(읍장 박성순)이 사계절 꽃피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꽃길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읍은 최근 보성리~옥암리와 용문리~미력면 등 주요 도로변 34㎞에 가을 꽃의 대명사인 황화 코스모스를 심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나주初等 운동장 인조잔디 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받아 연내 설치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나주초등학교에 1만㎡ 규모의 인조 잔디구장이 설치된다.

나주초등학교는 지난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인조 잔디구장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인조 잔디구장 설치에는 3억2천여만원이 소요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인조잔디 구장 설치는 이 학교 출신 최인기 국회의원의 노력 덕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의원은 학부형과 동문, 지역 체육인들의 건의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사업비 3억 2천여 만원을 확보했다.

올 연말까지 인조 잔디구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재학생들은 물론 나주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된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牛公들 '어휴 시원해' 해남군이 여름철 가축 스트레스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647대의 환풍기 설치를 지원한 해남군은 올해도 4천여만 원을 들여 13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앙기·트랙터 등 농기계 임대 인기

담양군, 150여회 빌려줘

담양군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에 나서고 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29종 50대로 임대 사업에 나서 현재까지 150여회에 걸쳐 각종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빌려줬다.

특히 모내기철을 맞아 논두렁 조성기와 이앙기, 트랙터, 써래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는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되며 최장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를 원하는 농민들은 사용신청서(농업기술센터 비치) 제출과 사용료 입금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교육받아야 한다.

문의(061-380-3432)

/담양=차재화기자 jhwha@

"토요·야간진료 합니다"

해남군 보건소 농번기 맞아

해남군 보건소가 농번기철을 맞아 토요 진료와 주 1회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저녁 9시까지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오후 1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특히 관내 직장 임산부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임산부 건강지원 및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죽향문화 체험마을' 본격 조성한다

담양군, 운교리 일원 확정 … 명칭 공모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담양군은 최근 명칭 선정 심의회를 열고 담양읍 운교리 일원에 조성중인 가칭 '시가문화촌'을 '죽향문화 체험마을'로 확정했다.

군은 이 일대에 대해 임시로 사용해온 '시가문화촌'이라는 이름이 소쇄원을 중심으로 남면, 고서면 일대를 지칭하는 '시가문화권'이라는 명칭과 혼동될 수 있어 새 이름을 공모했다.

군은 최근 실시한 공모에서 55건의 응모작 중 당선작을 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재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정했다.

군은 또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체험장 건립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올해 안에 개장할 예정이다.

군은 전통 한옥체험장과 의병장 고경명 기병지인 추성관이 있는 이곳 3만여 평에 면앙정, 송강정, 소리 전수관인 우송당 등 담양에 있는 문화유적 모형을 설치할 계획이다.

죽향문화 체험마을은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광양 밤나무 단지 항공방제

광양시가 19일부터 오는 7월 8까지 21일간 밤나무 복숭아명나방 해충 구제를 위한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광양읍 외 6개 면·동의 밤나무 재배단지 5천536ha를 대상으로 오전 5시30분부터 11시까지 실시된다.

읍·면·동별 방제일정은 ▲광양읍 19일 ▲옥룡면 20·21일 ▲옥곡면 22~25일 ▲진상면 26~7월4일 ▲다압면 24~7월8일 등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